

치과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 수 진 / 뉴욕BNS치과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즉 우리나라 치과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시작을 1977년 기준으로 한다면 5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은 반세기 동안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화 발전에 대해 알아보면서 치과건강보험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의 대응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었고 실제로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었다.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고 2000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설립되었다.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유형별 요양급여계약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19-2023년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2024-2028년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실행 중이다.

1977년 의료보장 대상자는 529만6천명, 건강보험 대상자는 3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14.5%, 10% 정도였으나 2023년 의료보장 대상자는 5,297만명, 건강보험 대상자는 5,145만명이 넘어 전체 인구 즉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다. 의료인 현황은 1977년 의사 21,734명, 치과의사 2,899명, 한의사 2,821명에서 2024년 의사 109,274명, 치과의사 28,836명, 한의사 23,642명으로 의사는 5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치과의사 1인당 인구 수는 12,568명에서 1,776명으로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77년 518,000원에서 2024년 49,959,000원으로 약 96배 증가하였는데 초진료는 1977년 1,300원에서 24년 16,510원으로 겨우 13배 상승하였고, 행위급여,비급여 항목 수는 1977년 전체 763항목 중 치과 40개 항목에서 24년 현재 8,707항목에서 치과는 771개 항목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치과 급여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서 치과건강보험의 역사와 보장성 확대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제도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2024년 발표된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의료계획 1차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수가제도와 치과건강보험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보면서 치과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인하대학교 의학대학원 석사
- * 현, 뉴욕bns치과 원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비상임이사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